지상백고좌

청주 관음사 회주 함현 스님

“수행, 나를 밝히고 나를 꽃 피우는 것”



함현 스님은… 보은 법주사에서 이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로서 대중들과 함께 정진했으며 현재 청주 관음사 회주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약 20년 전의 일이다. 당시 〈현대불교〉 신입 기자이던 시절, 조계사 신도회가 문경 봉암사로 대중공양을 가니 동행해 현장 취재기사를 써보라는 데스크의 지시가 내려왔다. 불교의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할 때라 주저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며칠이 지나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렸다. 1년에 한 번 문을 열어준다는 종립(宗立)선원에 도착한 기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수백 명의 불자들은 봉암사 곳곳을 참배하고 담 너머 선원의 스님들이 하루빨리 도를 이뤄 중생을 제도해주기를 발원했다.

불자들이 대웅전에서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점심공양을 하는 사이 경내를 휘젓고 다니던 그 찰나. 희양산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하는 거야?” 흡사 사자의 포효 같았다. 곧바로 주지실로 소환됐다.

“여기는 모든 전각이 선원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면 스님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나?”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두 손이 모아졌다. 한참 동안 혼이 난 뒤 스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호랑이 같이 큰 눈과 목소리를 가진 주지스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했다. 서울로 올라와 스님의 ‘정체’(?)를 수소문했다. 바로 함현 스님이었다. 당시 선방의 중진으로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스님. ‘봉암사’라는 한국불교의 상징을 지키고 있는 수좌가 바로 함현 스님이었다.

운명적 순간의 연속

시간이 흐르고 흘러 최근 스님의 근황을 다시 들었다. 스님이 ‘정토(淨土)의 종지기’를 자처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안부도 여쭐 겸 서울 은평구의 도솔선원 문을 두드렸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무디따(Mudita)’ 글씨가 걸린 벽이 인상적이었다.

스님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우렁찬 목소리와 큰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여전했다. 다만 시커멓던 눈썹의 반이 어느덧 하얗게 변한 것에서 세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 관음사와 도솔선원을 오가면서 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중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좌(首座)에서 염불 수행 전도사(?)로 반 발짝 자리를 옮긴 함현 스님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우선 스님의 부처님 인연부터 듣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의 어느 날 저녁에 조계사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탁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대웅전에서 사람들이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던지 스님의 법문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회에 나가게 됐고 인천 용화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계사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법사스님께서 법문 말미에 ‘출가할 사람 손 좀 들어봐’라고 하시는데 대중 중 유일하게 저만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스님의 출가는 운명이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다”고 했다. 조계사 대중으로 있던 스님이 추천서를 써줬다. 한 분은 법주사 주지 이두 스님이었고, 또 한 분은 해인사의 일타 스님이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다 옥천역에서 내렸다. “법주사 대불(大佛)을 먼저 보고 싶어서 내렸다”는 스님은 그길로 이두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1977년의 일이다.

출가 전 송담 스님께 ‘시심마’ 받아
출가 후 해인사, 봉암사 등서 수행
서암 스님께 ‘無’자 화두 받아 정진

2022년 “정토 종지기 될 것” 선언
나이 들어 참선 어려워지자 결정해
연관 스님 원적도 결정에 영향 줘
역대 선사들, 염불정진 중요성 강조

“처음 만난 은사스님은 얼굴이 하얗고 아주 미남이셨어요. 하하. 학승이셔서 그런지 말씀도 잘하시고 편안하신 인상이어서 바로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는 ‘중노릇 잘하라’는 당부를 자주 하셨습니다.”

스님은 바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방에서 무려 30명이 넘는 행자들이 함께 생활했다.

“하다 보니 행자반장을 맡게 됐어요.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일이 많습니다. 강원 학인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제 목소리가 방해가 됐나 봐요. 200명이 넘는 학인스님 앞에 불려가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혼이 났습니다. 대중공사가 끝나고 마당에 나오자마자 쓰러질 정도로 많은 경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행자를 마친 스님은 계를 받고 강원에 입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가야 했고 제대 후에는 바로 선원에서의 정진을 시작했다.

“출가 전에는 송담 스님께 참선을 배웠습니다. ‘시심마(是甚麽)’를 화두로 받아 정진했습니다. 출가 후에는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통도사,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제방에 다니다가 서암 스님을 모시면서 무(無)자로 화두를 바꿨습니다. 서암 스님을 모시고 살 때 공부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서암 스님은 항상 자비롭고 진솔하게 후학들을 제접하셨어요. 봉암사에 오시는 모습, 봉암사에서 가시는 모습만 봐도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좀 거칠게 여쭈어도 스님께서는 항상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은 “성철, 서옹, 경봉, 구산, 월산, 서암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은 큰 복이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들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을 하는 중에도 이두 스님이 주석하고 있던 청주 관음사에서의 포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님의 법명이 ‘함현(涵玄)’이 된 사연도 운명적이다.

“해제를 하면 은사스님을 모시러 관음사에 가요. 가서 이것저것 사중 일을 살핍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은사스님께 잡혀서 총무 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하면 수십 수백 명이 오고 그랬습니다. 법회에 오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하루는 명단을 보니 ‘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16명이나 됐습니다. 그때 제 법명이 현정이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주신 것이죠. 법회를 한 번 열면 여기저기서 현정이를 찾습니다. 개구쟁이 녀석들은 일부러 저 들으라고 현정이를 찾았어요. 도저히 그대로는 법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사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함허득통 선사의 ‘함’자와 은사스님께서 주신 ‘현’자를 묶어 ‘함현’으로 법명을 바꿨습니다. 하하.”

스님은 제방에서의 정진을 이어가며 2005년부터 4년간 봉암사 주지를 지내기도 했다. 봉암사 주지소임 회향 후에도 수행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일’이 생겼다.

13면에 계속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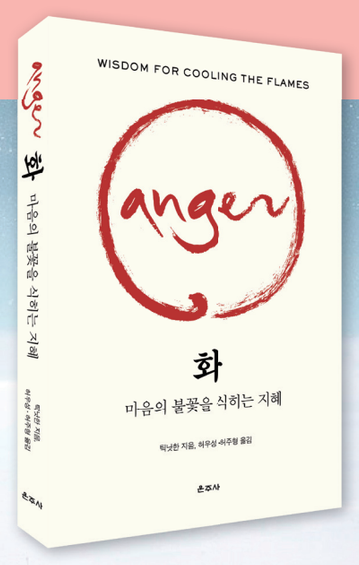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